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14.(목) 9:00
(지 면) 2026. 5. 14.(목) 석간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 AI 국민비서, 이제 말로 하세요

- 카카오톡 AI 국민비서 ‘음성 인식’ 기능 개시
 - 텍스트 입력 없이 음성으로 증명서 발급부터 시설 예약까지 가능
- 【관련 국정과제】 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김모 씨는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텍스트 입력에 어려움이 있어 PC나 이동통신(모바일)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었다. 이제는 카카오톡 ‘AI 국민비서’에게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라고 말로만 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기반 ‘AI 국민비서’에 음성 인식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텍스트 입력 없이 말로도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조작이나 텍스트 입력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장벽 없이 행정 혜택을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말로 해결되는 공공서비스,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

현재 민간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톡과 협력하여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 발급과 1,200여 개의 공공시설 조회 및 예약을 일상 언어로 대화처럼 할 수 있도록 시범 제공하고 있는 ‘AI 국민비서’는 이번 음성 기능 추가로 그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용자는 새로운 버전의 카카오톡을 내려받은 후 카카오톡 ‘AI 국민비서’ 대화창에서 별도의 텍스트 입력 없이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 “테니스장 예약해줘”와 같이 평소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음성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인공지능(AI)이 의도를 파악해 관련 서비스를 즉시 실행하게 된다. 아울러 카카오톡 실행 후 더보기 메뉴의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AI 국민비서’가 바로 실행되어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보안성까지 빈틈없이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 영역에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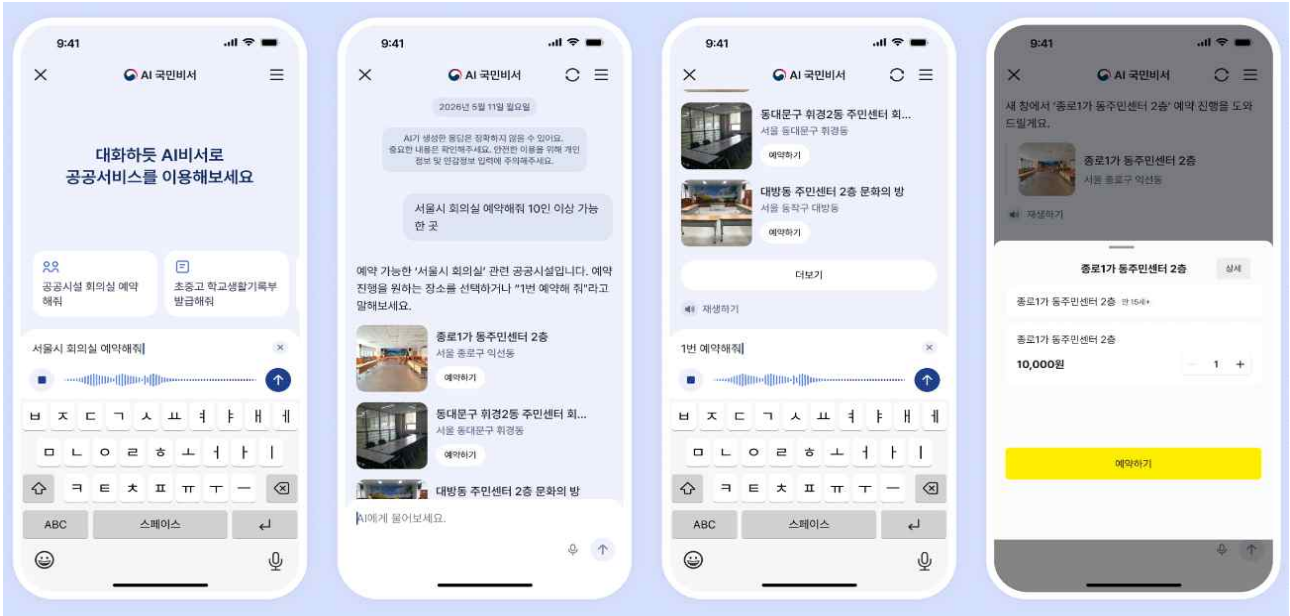
특히, 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다뤄지는 만큼, 카카오톡의 최신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엄격하게 적용해 국민 누구나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카카오톡 ‘AI 국민비서’ 음성 기능 도입으로 디지털 취약 계층도 일상 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를 지속 선보여 ‘AI 민주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공공서비스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민식 (044-205-2721)
		담당자	서기관	고경희 (044-205-2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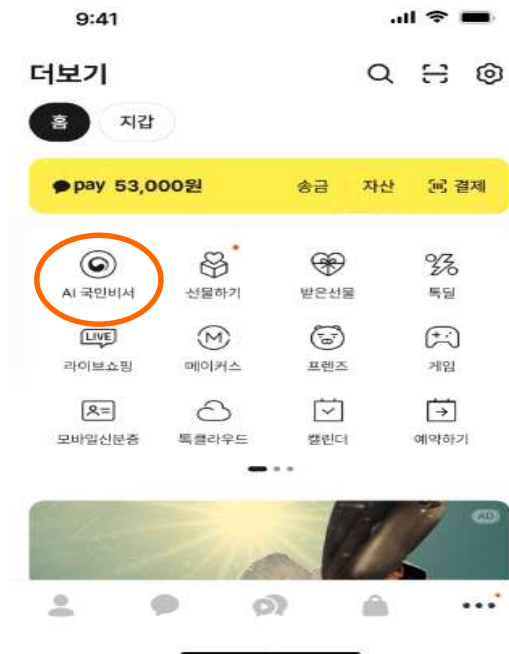


□ 카카오 AI 국민비서 음성기능 이용 화면(예)



□ 카카오 AI 국민비서 시작하기

○ 카카오톡 실행 → 화면 우측 화면의 ... (더보기) 클릭 → AI 국민비서 아이콘 클릭



* 실제 아이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